

73-1-22

45
100

南北韓 經濟交流와 國力總和方案

보 관 용

(관 리 과)

1973. 8.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8.



忠南大學校

研究責任者 : 總長 朴喜範

次 例

1. 國際政治情勢의 變遷	3
2. 南北經濟交流의 可能性	7
1) 北韓의 立場	8
2) 南韓의 立場	12
3. 經濟力 比較로서의 南北交流	18
4. 1人體制 对 万人體制의 競争	23
5. 農漁村經濟의 開發	28
6. 結 語	33

1. 國際政治情勢의 變遷

50年代의 「이데올로기」對立에서 60年代의 「네셔널 인터레스트」 追求의 時代로의 國際政治情勢 變化는 國際政治 그 자체의 論理的 歸結이기도 했지만 國際經濟情勢의 當연한 歸結이기도 했다. 美國의 援助로 戰災를 後旧한 列強은 冷戰의 原理下에 美國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하나의 世界」를 벗어나 各들 스스로의 利害 集團을 형성하는 등 國家利益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1960年을 고비로 형성되기 시작한 「西歐共同市場」을 비롯하여 「西歐自由貿易聯合」, 그리고 그 이전부터 가남프게나마 存續되었던 英聯邦등의 새로운 움직임은 그 좋은 예였고, 東南亞細亞에 있어서 의 日本의 經濟勢力 扶植 또한 그러했다.

60年代의 國際政治를 國家利益 追求의 時代라고 한다면 70年을 前後하여 두드러지게 그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한 東西解氷의 「무우드」는 國際經濟의 動向에도 새로운 樣相을 띠게 하였다. 東西 貿易 내지 兩陣營 間에 있어서의 資本交流의 漸增이 바로 그것이다. 50年代에 있어서도 東西貿易은 있었다. 特히 國際競爭力이 自由世界에서 가장 약했던 英國은 소련 및 中共과의 貿易에서 國際收支의 均衡을 노렸고, 60年代에 들어와서는 西獨과 「프랑스」 역시 對 共產國 貿易의 幅을 넓히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東西間에 있어서의 貿易과 資本協力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70年代에 들어 온 후의 일이다.

國際政治 情勢로 하여금 東西解氷의 「무우드」를 조성하게 한 經濟的 理由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美國經濟의 國際競爭力 弱化이다. 60年代 後半까지 政治的으로나 經濟적으로 自由陣營을 이끌어 온 美國은 항상 그의 GNP 1%에 해당하는 貿易黒字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國際競爭力이 強했고, 그것으로써 海外基地 및 自由陣營에 대한 經濟援助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60年代 後半부터 美國의 貿易收支는 점차 惡化하여 1972年 8月 15日의 「닉슨措置」가 斷行될 때에는 막대한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美國이 종전처럼 政治的으로나 經濟적으로 自由世界를 이끌어 나갈 經濟的 바탕을 상실하여 적어도 冷戰體制를 유지할 만한 自由陣營의 旗手가 힘을 못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西方列強의 經濟的 富強이다. 그들의 富強이 美國援助에 힘입은 바 크지만, 부강된 이후의 그들은 美國에 대한 강력한 競爭者로 登場하였다. 그래서 「비셔널 인터레스트」의 時代가 演出되었고, 商品만 팔 수 있다면 共產陣營도 그들의 市場이 되는 東西解氷의 一步直前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셋째로 共產陣營內部에 變化이다. 60年을 전후해서 발족했던 共產陣營 전체를 單一体로 한 綜合開發計劃은 그 자체가 實現性없는 虛構에 지나지 않았지만, 計劃의 內容이 소련을 爲主로 하여 衛星國의 國家利益을 無視하였던 까닭에 심각한 反撥를 사게 되었던 1958年 10月에 시작되었던 中蘇理念紛爭은 아마 「후르시 초프」의 이러한 無謀한 綜合開發計劃의 構想이 없었던들 적어도

5~6年은 延期되었을 것이다. 「후르시 초프」의 社會主義綜合開發計劃은 衛星國으로 하여금 蘇聯에 依拠하여 工業化를 달성하려는 그들의 慾望을 霧散케 하였다. 이리하여 中共을 비롯한 共產衛星國은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을 西方世界에서 구하기 시작하였고, 蘇聯 역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東西間의 貿易 내지 資本協力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東西解氷의 「무우드」는 双方에서 다 같이 作用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必然的 新産이기도 했다. 南北經濟交流를 論議하는 경우, 우리는 먼저 이러한 國際政治 내지 經濟情勢를 하나의 与件으로서 받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새로운 變動에의 適應過程에서 主体的 力量을 발휘하는 것은 賢明한 民族的 課業이지만, 國際 政治經濟 情勢로부터 獨立될 수는 없는 일이다.

東西解氷의 「무우드」는 특히 美·蘇, 美·中共 間의 交易을 漸次 增大하게 할 것이고, 日本 또한 蘇聯 및 中共과의 經濟交流를 더욱 크게 원하게 될 것이다. 美國과 日本은 우리나라와 經濟적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冷戰體制를 固守한다면 우리나라가 生産한 資材나 製品으로 加工한 美國이나 日本의 製品이 共產陣營에 輸出될 수는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美國이나 日本産 原資材나 製品이 우리나라에서 加工되어 共產國家로 輸出될 수도 없다. 그리고 對共輸出을 目的으로 韓國에 進出하고자 하는 多國籍 企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強大國 간의 東西解氷 「무우드」는 弱少國으로 하여금 解氷의 潮流에 휩쓸리게 하며, 그렇지 않고는 政治적으로나 經濟적으로 存立의 基盤을 잃게 마련이다. 확실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率先하여 冷戰體制를 解氷의 方向으로 이끌어 가야 할 對內的 要因은 成熟되어 있지 않다. 金日成의 「스탈린」 主義的 行動樣式에 變化가 없는 한 그것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70年을 고비로 한 國際情勢의 變化는 우리로 하여금 東西解氷이라는 國際「무우드」에 휩쓸리게 하였다. 東西解氷에 參與하자면 우선 南北의 經濟交流가 前提되거나 同時에 進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는 蘇聯 및 中共과의 經濟交流는 期待될 수 없을 것이다.

2. 南北經濟交流의 可能性

南北經濟交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昨今の 國際情勢로 말미암아 強要된 交流이지 自發的인 交流은 분명 아니다. 설사 우리가 원한 賊자 「스탈린 主義의 化身」인 金日成體制가 받아 드릴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立場도 모든 분야에서 優勢한 姿勢로 經濟交流에 임할 수 있을만큼 준비가 완료된 것도 아니다. 雙方은 서로가 優勢의 立場에 서기를 꾀할 것이며, 따라서 交流에서 오는 國際企業의 利益 그것 보다는 政治的 利害關係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境地에 있다. 왜냐하면 南北의 經濟交流 그 자체가 國際情勢의 變化에 있어서 強要된 것이기 때문에 冷戰體制가 南北交流라는 「새로운 冷戰體制」로 탈바꿈 했을뿐 韓半島의 경우 冷戰體制 그 자체가 解氷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南北交流의 戰略과 技術도 南北交流의 이러한 性格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南北交流의 性格이 그러한 만큼 南北間의 經濟交流 可能性 또한 慎重히 吟味해야 할 問題이다. 왜냐하면 南北交流 중에서도 經濟交流란 至難한 課題중의 至難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서로 필요해서 交流을 하는 것이 아니라, 國際情勢로 하여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冷戰의 터전을 經濟交流라는 局面으로 옮겨 놓은 한 雙方이 자기의 優勢를 誇示하려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분야에 있어서의 交流을 拒否할 것인즉 經濟交流 그 자체의 成立可

能性이 疑心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準備段階와 상당한 節次를 거치고, 北韓이 武力에 의한 南侵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南北間의 경제교류는 이루어질 것이다.

좀더 南北交流의 實現可能性의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雙方이 優勢의 立場에 서기를 원하고 國際分業의 利益보다는 政治的利害關係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經濟交流 可能性이 희박하기는 하나 雙方은 또한 南北交流를 拒否할 수 없는 二律背反의 論理를 內包하고 있다.

1) 北韓의 立場

먼저 北韓의 立場을 보자. 北韓은 이른바 「스탈린主義」의 開發方式에 의하여 重工業은 南韓보다 앞서고 있다. 물론 그것은 立地的 條件과 日本으로부터 물려 받은 經濟的 遺産에 힘입은 바도 크다. 그러나 工作機械 및 일부 機械工業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現代技術의 導入이 鐵의 帳幕에 의하여 杜絶되어 있을 뿐 아니라, 蘇聯 역시 重化學工業의 技術을 衛星國에 公開하지 않아 技術의 鎖國主義를 免하지 못한데서 오는 모든 弱點을 甘受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製鐵 및 機械工業에 있어서도 特殊旋盤 및 工具 등 일부 低級品을 제외하고는 自由陣營의 國際市場에서 競爭力을 갖춘 商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製鐵工業이 앞섰다고 해도

그것은 量的 문제이지 現代水準의 機械의 原料가 될 수 있는 良質의 鋼鉄生産이 可能的인 綜合製鉄工場은 아직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技術의 鎖國主義 내지 蘇聯으로부터의 支援 期待 不可能性은 특히 電子工業과 石油化學工業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들 자체의 技術로서 開發했다고 자랑하는 소위 「비나론」도 西歐의 「나이론」에 質과 生産費 면에서 比較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電子工業 역시 이제 겨우 일부 組立의 段階에 있는 것으로 觀測되며, 그것은 技術적으로 뒤지고 있는 蘇聯으로부터의 技術情報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蘇聯이 「나이론」을 生産하기 시작한 것은 1964年으로 報道되고 있으며, 電子工業이 軍需生産 아닌 民間의 것으로 生産되기 시작한 것도 西歐에 훨씬 뒤지고 있다. 또 電子理論의 原理 그 자체보다도 商品生産으로서의 電子工業은 蘇聯과 같은 硬直化된 官僚主義方式으로는 더욱 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蘇聯을 技術導入의 唯一한 祖國으로 삼기는 한 北韓의 工業化 또한 國際潮流에서 뒤지기 마련이다. 그들이 發表하는 統計 指標은 언제나 日帝末年을 基準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때보다 지금은 수백배 수만배 生産이 增加되었을지 모르나, 他國과 比較한 相對的인 成長速度나 앞으로 成長可能性을 문제 삼을 때는 閉鎖主義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北韓의 立場은 西方世界에 대해 門戶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놓여 있다. 重工業의 現代化 문제도 문제려니와 아직도 精油工場조차 없는 石油化學工業은 물론 機械工業과 表裏關係에 있

는 電子工業 및 精密機械工業 등의 育成을 위해서는 언제까지나 期待할 수 없는 蘇聯의 慈悲만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다. 西方에 대해 門을 열자면 資本主義的 生理의 西方의 資本과 技術이 들어갈 수 있게끔 「스탈린主義」를 버리거나 緩和해야 하고, 日本을 욕하지 말아야 하고 「美帝」를 罵倒하지 말거나 크게 緩和해야 한다. 그들 共產主義의 論理에 따르면 美帝나 日本帝國主義란 말은 단순히 美國 및 日本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나 西獨 등 모든 資本主義陣營에 통하는 말이다. 따라서 北韓이 西方의 어느 國家와 經濟協力關係를 맺던 간에 徹頭徹尾 資本主義를 敵對視하고 경멸하던 「스탈린主義」는 修正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態度變化는 우선 南韓에 대한 敵對態度부터 是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北韓이 西方으로 통하는 門戶는 바로 南韓과의 對話이고 南韓과의 敵對關係를 存続시키면서 西方諸國에 대해 「스탈린主義」의 修正을 立證할 길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北韓이 西方으로 통하는 第一關門이 바로 南韓이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南韓과의 對話 혹은 對話의 繼續을 통해서만 西方과 이야기가 통할 것이다. 따라서 南韓을 追越하여 西方諸國에 대해서만 對話의 門을 연다는 것은 그들의 軍國 및 侵略主義 = 「스탈린主義」의 포기를 認定받지 못할 것이다.

北韓이 「스탈린主義」를 포기하거나 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中共과 蘇聯이 다 같이 北韓의 武力侵略主義를 弁護하거나 支援하지 않으리라는 客觀的 國際政治情勢

이다. 蘇聯이나 中共 역시 西方으로부터 技術導入과 資本協力を 期待하지 않을 수 없는 処地에 있고, 中共의 경우 그 成功 与否가 곧 그들의 工業化의 運命을 左右하게 되는 版局에 아무 所得도 期待되지 않는 北韓의 侵略主義를 後援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北韓이 7·4 共同聲明에 應하게 된 裏面에는 蘇聯과 中共의 壓力이 多分히 作用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 蘇聯 및 中共 역시 美國과의 讓解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國際政治論理의 常識일는지 모른다. 金日成은 近年에 와서 전에 없이 主体意識을 강조한 바 있다. 閉鎖主義下의 獨裁者는 자신의 힘을 過信하기 일쑤이다. 在來式 武器의 生産이 可能하다고 해서 中蘇의 支援없이도 南侵이 可能하고, 南侵한데도 美國이나 日本은 뒷손만 잡고 傍觀하리라는 誤算을 또 한번 犯할 可能性도 充分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이 西方으로 門戶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對內 및 對外的 要因이 강력하게 作用하고 있다 하더라도, 金日成이 南侵意慾을 버렸다고 본다면 金日成 이상의 誤算을 犯할 것이다. 이러한 潛在性을 항상 內包하면서도 北韓은 이미 뒤졌거나 뒤지기 시작한 그들의 工業化 過程에 活力素를 구하기 위해 西方으로의 門戶開放으로 資本協力 및 技術導入을 꾀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北韓이 經濟交流를 위한 對話에 應하게 된 것은 主体的 要因이 成熟하여 武力을 버리고 平和的 統一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平和統一을 위한 主体的 要因의 成熟보다 國際情勢의 壓力과 中蘇兩國의 政治的 壓力으로 인한 外的 壓力이 北韓으로 하여

금 協商에 臨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南北經濟交流에 의해 期待되는 經濟的 所得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스탈린主義」의 侵略의 變型인 政治的 利得이 그들의 목적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北韓이 一面 侵略의 機會를 엿보면서도 對話에 應하여 及其也는 南北經濟交流의 實現에 까지 나오리라는 可能性도 있다. 이미 우리에게 뒤졌거나 뒤지기 시작한 그들의 工業化를 위해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西方에서 求하지 않을 수 없는 強力한 對內的 要因이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西方에의 길목에는 南韓과의 平和的 共存이라는 그들에겐 달갑지 않은 前提條件이 介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南韓의 立場

北韓의 態度는 南韓의 政策決定에 많은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아무리 南韓이 眞正으로 對話와 協商을 통한 祖国統一을 원한다 하더라도 北韓이 侵略的 「스탈린主義」를 포기한 證據가 없는한, 그리고 그것을 立證할 만한 体制와 人的要素의 變化가 없는한,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南韓의 立場은 北韓이 「스탈린主義」를 버리지 않고 있으므로 一面国防 一面協商의 政策을 監視하지 않을 수 없다. 國際政治・經濟情勢의 變遷이 南韓의 統一政策 내지는 南北交流政策에 미치는 영향은 北韓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이다. 南韓도 오직 北韓의 「스탈린主義」에 대항해서 「합

슈타인原則」만을 固執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왜냐하면 國際政治・經濟情勢는 強大國의 政策에 의해 먼저 변화하고 從屬變數的으로 弱少國의 政策도 변화하여 國際情勢 전반의 變遷이 있기 때문이다. 벌써 美蘇의 交易은 크게 自由化하여 東西貿易이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美・中共의 經濟交流도 눈앞에 다가 왔으며, 日本을 소위 「키신저고문」의 中共訪問에 자극되어 中共에 阿附하다 못해 中共崇拜論까지 일어나고 있는 판국이다. 멀지 않아 中共과 日本의 飛行機가 우리의 領空을 通過하여 상호 交流하려 하고 있고 蘇聯과 日本간의 交易 및 經濟協力 또한 크게 증대될 展望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國際分業은 國境을 單位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産業 혹은 企業 内部에서 이루어지는 多國籍企業의 形態를 취하는 만큼, 우리가 「할슈타인 原則」을 고수한다면 共產圈 내지 中立國家群과 交易 가능한 財貨나 用役 生産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우리나라에 導入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經濟發展을 그만큼 制約되고 그만큼 國際分業 내지 多國籍企業의 利得을 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의 國際經濟情勢는 商品의 生産 내지 交易에 있어 거의 완전히 思想的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있으며, 國家利益主義下에 生産되고 交易되고 있다. 더욱 나아가 오늘의 先導的인 企業形態인 多國籍企業은 商品의 生産 및 交易에 있어 「내셔널 인터레스트」마저 저버리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多國籍 企業에 參與할 資本과 技術은 각각 그들의 母國의 國際權力을 背景으로 하기는 하나,

祖国負擔의 輕減과 값싼 生産 및 交易을 위해서는 서슴치 않고 母國을 버리고 便利하게 多籍形態의 企業을 그들이 원하는 世界 어느 곳에서나 創業을 한다. 따라서 오늘의 國際企業은 國家 혹은 民族을 單位로 했던 19世紀的 分業은 물론 60年代 後半까지의 「이데올로기」的 國際分業에서 벗어나 企業을 單位로 한 企業으로 바뀌고 말았다. 國際政治學에서는 「이데올로기」의 時代로부터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時代로 변천했다고 하나 國際經濟學的 視點에서 보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時代에서 多国籍 企業의 「프라이비트 인터레스트」의 時代로 바뀌어졌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할슈타인原則」에 따라 共產圈 내지 中立國에 대해 政治的 鎖國主義를 固守한다면 그것은 곧 國際分業상의 경제적 鎖國主義를 뜻한다. 우리와 같이 國土가 좁고 資源이 貧弱한 대신 人口가 조밀한 나라가 國際分業에 큰 制約을 받는다면 경제발전은 물론 國家存立에 대해서도 중대한 問題點을 던져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라는 國際分業의 利點을 살려 輸出爲主의 外向的 工業化 (Outward-looking industrialization)만이 繁榮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國際情勢하에서는 共產主義와 「이데올로기」鬭爭은 더욱 深化하되 對內問題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國際的 十字軍 役割보다는 실속있는 對內鬭爭의 強化가 필요하다. 물론 共產主義者들이 世界赤化의 꿈을 버리거나 그것을

위한 活動을 断念한 것은 결코 아니다. 世界變化의 活動의 存続하는 한 自由의 國際的 十字軍戰列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國際情勢는 그 斗争의 場面이 武力이나 「이데올로기」보다는 兩体制의 經濟機能의 優劣이라는 경제적 繁榮을 위한 競爭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만 韓半島만이 經濟機能의 競爭도 競爭이지만, 「이데올로기」 내지 武力侵略이라는 「스탈린主義」의 亡靈이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一般的 國際情勢의 영향만으로서만 움직이지 않는 特殊地帶에 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一面国防, 一面建設이라는 國家政策이 요청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와의 鬭爭과 經濟繁榮의 競爭을 동시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와의 斗争을 위한 國防政策과 經濟繁榮政策은 矛盾 對立 한다. 國防을 강화하자면 경제번영을 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濟繁榮에 의한 經濟力의 強化없이는 自主的 國防力의 強化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관건은 速成工業化에 의한 高速成長과 生産構造의 高度化에 있다. 그리고 速成工業化는 오늘의 國際分業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 多国籍企業의 形成, 그것을 위한 外國의 資本과 技術의 導入을 前提條件으로 한다. 外國의 資本과 技術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아닌 企業의 「프라이비트 인터레스트」(Private interest)를 추구하여 韓國에 投資되고 流入되자면, 문제의 多国籍企業이 생산한 商品이 共產圈이나 中立國으로도 販賣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國內市場이 좁고 國內資源

이 貧弱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韓國의 投資市場이 그러한 매력이 없는 한 外國의 資本과 技術의 導入은 制約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데올로기」鬭爭 내지 武力鬭爭의 기반이 되는 經濟繁榮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東西解氷과 더불어 우리는 어차피 共產世界 내지 中立國陣營에 門戶를 開放하지 않을 수 없는 運命을 지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外向的 工業化가 우리의 經濟開發戰略에서 一義的인 意義를 갖는 한 國際政治 및 經濟情勢를 變動的으로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共產世界나 中立陣營과 交易을 하고 文化交流를 하자면 먼저 冷戰體制에 修正이 가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對話 내지 協商이 先行되어야 한다. 韓半島만의 情勢를 본다면 北에서는 좀처럼 「스탈린主義」의 一人 獨裁體制에 變化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한 南에서 武力對備가 必要하여 冷戰體制가 除去될 아무런 요인이 없다. 그러나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北은 北대로, 그리고 南은 南대로 對話의, 길을 모색하거나, 적어도 對話를 假裝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놓이게 되었다. 對話가 對話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北은 西方世界로 門戶를 開放하기 위해 필요하고, 南은 東西解氷의 물결에 발맞춰 外向的 工業化로 經濟繁榮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서도 對話나 協商은 해야 하고 지속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南北의 經濟交流는, 北의 金日

成體制에 變化가 없는한, 이루어지기 長時間이 필요할 것이고, 이루어진다 해도 量이나 質에 있어 期待할 만한 것이 못될 것이며, 南北經濟交流은 分業的 利得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南北經濟交流에 의하여 交易되는 商品의 質의 優劣에 의해 두 체제의 機能的 比較를 앞세우는 政治宣傳의 目的이 보다 「어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經濟的 相互利益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對話는 계속되어야 하고 經濟交流은 모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南北의 經濟交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論及했드시 보다 高次元의 政治的 目的 내지 經濟政策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經濟力 比較로서의 南北交流

두 体制의 對決은 어차피 經濟力의 優劣에 의해 결정된다. 南北의 經濟交流 역시 交易의 利得보다는 經濟力의 誇示라는 政治目的이 앞서게 된다. 統一은 두 体制의 聯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국엔 하나의 体制에 의한 다른 하나의 体制의 支配 내지 制壓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처럼 南北의 經濟交流가 国力의 比較라는 政治目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南北 經濟交流의 궁극의 수단은 生産構造의 高度化, 즉 重化學工業의 育成이 되고 해야 한다. 교환될 商品의 質의 優秀性은 重化學工業 製品을 비롯한 高次元의 商品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商品交流는 다른 側面도 있다. 交易될 商品의 種類와 質에 의해 相對方에게 이쪽의 物質生活의 豊요한 樣相을 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質이 좋고 便利한 여러 가지 消費財의 交換을 만일 北韓이 받아들인다면 아마 北韓에서 革命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것도 역시 国力比較일에 틀림없다.

우리가 아는 限度내에서는 지금 機械工業과 農業面에서 우리는 北韓에 약간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는 綜合製鐵과 그 補完工業이 育成되어 앞으로 機械工業 면에서 北을 凌駕할 여건을 가추어 가고는 있지만, 적어도 양에 있어서 鐵鋼生産이 未及하고, 工作機械와 重機械등의 生産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면 電子 및 電子工業, 石油化學工業, 建設資材工業 및 거의 전부

의 消費財工業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一般産業機械 輸送機械 精密機械工業등에서는 優劣이 크게 가려지지 않고 있으나, 機械工業의 基礎를 이루는 鑄鍛造工業과 要素部品工業은 대체로 北韓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綜合製鉄을 위한 各種 補完工業의 발달로 적어도 鑄鍛造工業에 있어서는 그 간격이 좁혀지거나 優劣이 전도되는 분야도 많을것 같다.

풍부한 物質生活을 誇示할 수 있는 消費財工業 및 各種 輕工業分野는 크게 우리가 앞서 있고, 또 共產體制인 北韓이 우리를 앞설 가담도 없다.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앞서면서도 부분적으로 뒤지고 있는 工業構造의 高度化에 있는 것이다. 經濟力 比較로서의 經濟交流가 政治적으로 利用될 수 있는 두가지 側面, 즉 工業構造의 高度化 比較와 國民의 物質生活 水準에서 우리에게 문제시되는 것은 前者인 工業構造의 高度化이다.

따라서 重化學工業의 開發과 그것과 不可分離의 關係를 갖는 電子 및 電氣 機器工業의 開發이라 하겠다. 電子工業의 發展은 이미 本軌道에 오르고 있을뿐 아니라 北韓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電氣機器工業은 變壓器 라든가 큰 電氣機械는 오히려 우리가 뒤진 면도 있으나 電氣機具類는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문은 國際水準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의 바탕이 되는 精密機械工業과 더불어 더욱 育成·開發할 必要가 있다. 문제는 이미 浦項綜合製鉄의 擴張과 第二綜合製鉄의 建設을 결정한 製鉄 및 製鋼工業과 機械工業의 核

心を 이루는 鑄鍛造工業 및 金型 齒本 등 각종 部品을 생산하는 要素部品工業의 育成問題이다.

重工業 發展에 있어 政策的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外資와 技術의 導入도 그러하지만 專門化를 바탕으로한 機械工業의 系列化이다. 이 문제를 政策的으로 잘못 誘導하고 보면 千秋에 限을 남기게 될 것이다. 人口過剩과 低勞賃이란 好條件아래서는 專門化와 系列化 아니고는 이미 확고한 基盤을 갖추고 있는 先進國과 競争할 수 없다. 大型의 鑄鍛造工業과 數 많은 中小企業으로 형성되는 要素部品工業을 바탕으로 一般産業機械工業, 輸送機械工業, 重機械工業, 및 電子機器工業 時計 光学機械 工業計器 등을 생산하는 精密機械工業 등이 專門化되고 系列化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코스트 다운」과 量産体制를 갖출 수 없고 重工業 開發에 필요한 外資와 內資를 크게 節約할 수가 없다. 소위 제각기 綜合機械工場을 세워 필요한 主要部品과 각종 要素部品을 自家生産한다면 施設의 完全利用을 期할 수 없어 資本費用과 生産費의 累増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自動車, 電氣機器 電子工業品 및 精密工業品이 歐美 先進國을 앞서게 된 것은 바로 機械工業의 專門化와 系列化에 비롯된다.

만일 北韓이 그렇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앞서고 있는 機械工業에서 西方世界와 交易하고 資本協力이 이루어져 새로운 西方의 技術을 바탕으로 合理的으로 專門化되고 系列化된다면 이 부문에 있어서의 南北韓의 競争은 상당 期間 크게 우려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은 私有財産制度가 아니기 때문에 專門化와 系列化가 容易 다. 반면 資本이 公開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는 專門化 系列化 다는 資本系統에 따라 綜合機械工場의 建設을 피하기 쉽고 지금까지 그 러한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번에 重化学工業의 開發 및 既存 石油 化学工場의 扠下에 있어 公開法人을 要件으로 한 것은 하나의 記 的인 處事라고도 할 수 있다. 資本과 經營의 分離를 전제로 하고 서만 專門化, 系列化의 長点이 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 重 工業 發展에 있어 南北韓의 競争은 곧 專門化, 系列化의 競争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만 成功하면 여러 면에서 그 能이 우수한 資本主義體制가 北韓을 능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重化学工業中 石油化学工業은 더 말할것 없이 우리가 앞서고 있 다. 有機化学工業 및 無機化学工業에서 우리는 北韓보다 나쁜 条件 에서 출발하였고 특히 肥料工業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精油工場의 建設과 石油化学工業의 系列化가 이미 하나의 「콤비나아트」를 이루 고 있어 이제 國際水準의 規模의 擴大와 새로운 技術의 開發이 남아 있다. 당초 外國의 專門家들은 한결같이 韓國에서 石油 學 工業을 育成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 하였다. 國內의 많은 論家 들도 否定的 態度였다.

그러나 만일 60年代에 石油化学工業을 開發하지 않았더라면 마 이 부문에서도 北韓에 크게 뒤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韓은 비록 精油工場이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石油化学工業은 없 도 「카아바이트」를 原料로 하는 일부 石油化学工業이 그 자신의 힘으

로 開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國際競爭力을 갖출만큼 品質과 「코스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經濟力 比較로서의 南北交流에서 문제되는 것은 企業의 公開, 즉 資本과 經營의 分離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째로 필요한 民間資本을 最大限으로 動員할 수 있어 보다 많은 國民層이 重化学工業 建設에 參與할 수 있고, 둘째로 專門化 系列化의 條件이 갖추어져 資本集約的인 重工業을 中小企業에 適性化하고 勞動集約化하여 競爭力의 強化와 雇傭의 增大를 期待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的 課題가 해결되지 않고는 重工業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정책적 과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民間資本의 動員, 專門化, 系列化로 많은 中小企業家 및 動勞者의 動員으로 国力 總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해 国力比較의 角度에서 보인 南北經濟交流에서 우리의 重化学工業 商品이 北韓의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데올로기」의 對決에서 우리는 敗北하고 말 것이다.

4. 1 人体制 对 萬人体制的 競争

南北間의 經濟交流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異質的인 두 体制間의 經濟交流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極度로 權力이 集中되어 있고 모든 經濟活動이 中央集中的인 行政命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集産主義体制 (Collective System) 와 百家爭鳴의 萬人 对 萬人의 生存競争을 원칙으로 하는 資本主義体制 (Capitalistic System) 간의 經濟交流는 많은 문제점이 介在한다. 集産主義体制下의 經濟行爲決定 (economic decision-making) 은 中央集權的 行政命令에 의하여 一義적으로 決定되지만, 資本主義下에서는 市場의 價格機構 (Price mechanism) 를 통하여 個個人의 經濟行爲가 決定된다. 그야말로 1人体制 对 萬人体制간의 競争이 곧 앞으로 있으리라고 豫想되는 南北經濟交流의 樣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의 경우 가령 「對外貿易委員會」에서 南北間에 交流될 財貨와 用役의 量과 質과 價格 그리고 交易方法과 그 時期등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南韓의 경우 原則적으로 北韓의 貿易委員會의 提示하는 商品의 質과 價格으로 自己計算에 의하여 採算만 맞는다면, 北韓으로부터 원하는 量의 商品을 購入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側의 提示하는 商品의 價格이 生産費와는 아무 相關없는 政策價格으로써 그들이 그 商品을 그 값으로 南韓에 판매하여 얻으려고 하는 政治目的이 어떤 것이든 간에 自己計算에 의하여 採算만 맞는다면 輸入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의 政治目的 達成을 無意識중에 幫助하는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적당한 價格으로 어떤 商品을 北韓에 많이 販売할 수 있는 展望이 뚜렷하지만, 北韓의 貿易當局이 그것을 購入하기를 拒絶하면 輸出할 길이 없어진다.

萬人体制가 1人体制와 交流하자면 百家争鳴의 萬人体制를 組織化하여 1人体制와 對抗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維新憲法은 그 政治的 措置라 볼 수 있다. 組織化한다고 해서 資本主義의 市場機構를 否定할 필요는 없다. 市場機構를 바탕으로 競爭的 解決 (Competitive Solution) 을 原則으로 하되, 政策的 意志가 經濟行爲決定에 反映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交易의 代表者로서 特定の 經濟團體를 指定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일반론으로 化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充分하지 않다. 왜냐하면 北韓의 「對外交易委員會」는 交易의 管理機構이지 執行機構는 아닐 것이다. 가령 어떤 道單位의 特定機械生産組合 혹은 團體는 그들이 필요한 原料를 「對外交易委員會」의 管掌아래 直接 輸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그들은 南韓의 商人 혹은 生産者로부터 入札方式으로 필요한 原料를 輸入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南韓側이 交易의 代表者로 指名한 特定經濟團體만이 応札한다면 아마 그들은 非民主的이라고 攻撃할 것이다. 이처럼 國營貿易이라 해서 單一 國營機關이 모든 商品의 輸出入을 直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國營機關이 經濟機能別로 輸出入 商品의 量과 質 그리고 價格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各道單位 特定機械生産組合이 서로 그들 자신에게 不利하게 競爭하거나 하는 일

은 없을 것이고, 集産主義的 行政命令에 따를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萬人体制가 1人体制와 對等하게 交易하자면, 資本主義의 生理를 原理면에서 否定함이 없이 体制의 修正이 필요하다. 歴史的으로 우리가 參考할 수 있는 制度는 國家主義=全體主義的 經濟体制이다. 「나치스」나 「파시즘」의 經濟体制를 흔히 國家独占資本主義体制라고 한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價格 및 市場機構는 否定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各 企業은 萬人 對 萬人의 競爭關係에 있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原料나 그들이 販賣하고자 하는 商品은 同業者組合을 통해서 거래되었다. 따라서 去來條件의 決定은 개개의 企業의 手中에서 벗어나서 組合 對 組合간의 競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 同業者組合은 戰前의 獨逸의 경우 産業公團 및 그 傘下의 職業公團이었고, 伊太利의 경우 産業開發公司 및 그 傘下의 生産組合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産業別 내지 職業別 生産組合이었고 그것이 地域別로 組織되어 있었다. 이러한 組織體는 그 形態는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全國單位의 經濟團體는 있어도 職能別 및 地域別 單位團體는 반드시 形成되어 있지 않고 形成되어 있다 하더라도 中央과 系統에 따라 系列化되어 하나의 組織으로 存在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그들의 經濟行爲決定은 資本配定등 政府의 政策事項을 제외하고 統一되거나 體系化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약간만 修正하고 體系化 하면 北韓의 1人体制의 集産的 經濟機構와 對等하게 競爭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制度의 整備없이 莫然히 北韓은 「對外交易委員會」가 直接 南北經濟交流의 執行機關이 될 것이니 우리는 貿易協會나 經濟人聯合會로 代表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南北의 經濟交流가 具體化할 때 큰 混亂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經濟機能의 이러한 組織化는 時間이 걸릴뿐 아니라 組織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經濟行爲決定에 政策的 意志가 貫通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하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南北經濟交流에서 또하나 중요한 일은 우리가 北韓同胞들에게 豊富한 消費財를 政策的으로 販賣하여 그들의 福祉水準을 높이고 南韓의 物質生活의 實相을 알리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南韓의 경우 單一機關을 통해서든 아니면 直接 輸入했던 간에 일단 輸入한 商品은 國民에게 再販賣함으로써 貿易商은 採算을 맞출 수 있지만, 北韓의 경우 國營貿易이기 때문에 南韓으로부터 輸入한 消費財를 商標를 바꿔 再輸出하는 소각하든 그들의 政策에 따라 私的 採算을 무시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한한 방지하고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雙方이 각각 內陸에 貿易縮을 두어 일반 고객에게 자유로히 판매하기를 提案해 볼만 하다. 그렇게 되면 北韓 사람들이 直接 구입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南韓의 實相은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提案이 北韓當局에 의하여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南北간의 經濟交流는 交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雙方이 相對方을 모든 面에서 알기 전까지는, 政治的 目的이 우선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論及한 바와 같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經濟交流는 東西解氷으로 말미암아 冷戰의 場面이 經濟交流란 새로운 場面으로 옮겨 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요는 1人體制와 經濟交流를 하기 위해서는 国力을 組織化하고 團體交渉의 利點을 살릴 수 있게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1人體制下의 集産主義的 經濟行爲의 決定과 萬人體制의 市場機構를 통한 經濟行爲 決定간의 競爭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後者가 前者에 比해 不利하며, 마치 資本主義的 市場機構에 있어서의 獨寡占과 自由競爭만큼 差異가 있을 것이다. 이를 廻避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와 그 運營方法은 지난날의 國家主義 經濟體制의 그것을 參考로 할 수 있다. 그리고 交易된 南韓의 商品이 北韓同胞에게 侵透되기 위해서는 雙方이 서로 相對方의 內陸地域에 貿易館을 두는 提案을 할 필요가 있다. 維新憲法에 의한 国力의 組織化로 그들과의 交渉에서 對等한 團體交渉의 利點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国力의 總和體制와 그 運營의 妙가 필요할 것이다.

5. 農漁村經濟의 開發

南北간의 對話 및 經濟交流에서 소기의 成果를 얻고 民主体制를 誇示하고 統一過程에서 維持·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民主体制의 唯一의 短点이라 할 수 있는 總力体制의 確立이다. 個人 對 個人的의 競爭을 바탕으로 創意와 開拓의 機能은 共產体制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長点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相互間的의 協同에 있어서도 共產体制의 強要되고 好隸화된 協同보다는 보기에 어설피고 허스한 감이 있어도 民主社會에 있어서의 協同은 보다 能率的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새마을 運動」은 유교문화의 價値를 잘 살린 새로운 協同体制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國家利益과 体制의 利益을 도모하기 위한 總力体制의 形成은 共產体制가 中央集權的 내지 集產主義的 命令에 의해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데 비해 南韓의 民主体制는 說得과 理解, 相談과 協商, 寬容과 讓步등 時間이 필요하고 非能率的인 면이 있다. 일단 總和体制가 형성되기만 하면 共產体制보다 강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다. 維新憲法은 이러한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制定된 것이지만, 共產主義社會의 集產主義的 經濟問題 解決에 對抗하여 南北協商을 할 수 있는 体制의 確立은 未給하다.

民主社會에서 總力体制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國民 各階層 間的의 利害對立 問題이다. 그것이 심하면 社會 및 政治不安의 씨가 되며, 總力集結의 큰 障礙要素가 된다. 先進國에서

는 企業家와 勤勞者層의 對立으로 나타난다. 이미 工業이 發達한 産業社會이기 때문에 兩者간의 利害對立이 가장 뚜렷하다. 後進國이나 中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工業化過程에서 疎外될 수 밖에 없는 農漁村民과 都市民의 利害對立이 첫째 문제이고, 都市勤勞者 문제는 아직도 많은 失業者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勤勞者層이 그들의 利害關係를 강력하게 내세울 만큼 勞動市場이 組織化되어 있지 않다. 물론 都市庶民의 生活條件 및 生活環境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國民階層은 利害關係를 완전히 一掃할 수 없는 것이 人間社會이다. 民主社會나 共產社會나 다같이 그러하다. 그들은 民主社會를 보고 階級社會라 한다. 그러나 그들의 社會도 새로운 階級社會라는 것은 다름아닌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 우려 나온 批判이 아닌가? 人間의 能力은 본래 不公平하게 差等이 있다. 能力의 差等이 階層간의 利害關係의 根本인 이상 그것을 除去한다는 것은 人間社會 永遠의 宿題일뿐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 다만 階層 혹은 地域간의 利害對立이 심할수록 國民의 總和體制가 確立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만일 그것을 內包한채 總和體制가 成立했다 하더라도 그런 社會는 일단 外部로부터 衝擊만 받으면 總和도 무너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國民階層간의 利害關係는 對立의 樣相을 보이지 않게 緩和하는 政策이 隨伴되어야 한다.

筆者는 「새마을運動」 이전에 農漁村 生活環境改善政策을 具申한 바 있다. 農漁民의 所得水準을 당장에 都市民의 平均水準으로 끌어

어 올리는 諸般与件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所得水準이 설사 都市民의 平均水準까지 갑자기 올라 갔다해도 그들의 지난날의 習性때문에 그 所得을 生活水準의 向上을 위해 支出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所得을 값어치있게 生活環境改善에 支出하지 않고 傳統的인 支出方式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所得水準의 向上=生活水準의 向上이란 等式이 同時에 成立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農漁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生活環境을 改善하려 하지 않는 한 사람만이 그것을 改善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가령 트럭을 農事에 利用하고자 하나 道路가 좁다면 不可能한 일이다. 이리하여 農漁村經濟를 開發하는 일은 生産活動→所得增大→生活環境改善에 의한 厚生增大의 關係에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過程을 逆으로 추진하여 生活環境改善活動→厚生增大→所得增大效果라는 政策效果를 期待하는 것이 빠르다. 「새마을運動」은 바로 그러한 論理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새마을運動이 都市보다 農漁村에서 成果를 본 것은 農漁村에는 아직도 이웃이 協同하는 유교적 價値觀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利害로만 따지는 利益社會的 性格이 농후한 都市는 共同社會的 性格이 농후한 農漁村보다 이러한 逆의 「코스」에 의한 生活環境의 改善이 더욱 어렵게 마련이다. 그러나 農漁村에서는 그러한 運動이 가능하다.

南北의 經濟交流과 文化交流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社會의 취약점인 農漁村社會가 外觀上 衝擊을 받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물론

우리 農漁民의 內面的 生活이 北韓의 그것보다 豊富하고 裕福하다 하더라도 農漁村의 生活環境과 共同生産施設(農業의 社会間接資本)이 貧弱하다면 그런 可能性이 있다. 北韓은 村落이 改造된 곳도 있다고 한다. 都市民이 「아파트」生活化하는 傾向과 農漁村의 住宅 및 村落構造가 改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農漁電化 문제나 水利施設 및 共同利用施設등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의 새마을運動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기는 하나 農漁村經濟는 北韓에 뒤진 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推測된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農漁村經濟의 開發이야말로 南北交流에 있어서의 国力總和를 이룩하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課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農漁村의 生活環境改善政策과 社会間接資本 扩充政策은 다시 한번 反省해 보아야할 단계에 온 것 같다. 外觀上으로도 實質적으로도 우리의 農漁村의 生活環境이나 社会間接資本施設이 北韓의 그것보다는 越等 나아가야 한다. 住宅도 지붕改良에서 한발자욱 더 나아가 住宅構造 그 자체의 改良과 「스레트」 아닌 「세멘트」기와로의 代替가 組織的이고 計劃的이며, 忍耐性있게 꾸준히 推進될 필요가 있다. 1980년에 가서 토담집의 지붕改良만으로 農村의 近代化가 完成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만으로 南北對決을 위한 国力總和體制가 이룩될 것 같지 않다. 그뿐 아니라 住宅構造도 構造지만 村落構造가 더욱 문제이다. 風水說에 입각하여 住宅의 坐方이 각기 달라 村落全體의 土地를 效率

的으로 利用하지 못할뿐 아니라 土地의 筆地 그 자체가 耕地整理처럼 整理되어 있지 않다. 土地利用度를 더욱 낮추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農漁村은 無秩序하고 整頓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村落内の 道路는 整理한 대로 車輛의 通過가 어렵다. 이리하여 長期的으로 볼때 村落 그 자체의 改造가 필요하며 南北比較를 위해서도 그것은 時急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村落이 한날 한시에 改造可能할 정도로 이 문제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아마 10個年計劃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새마을運動의 熱誠을 새로운 住宅 및 村落改造運動으로 昇華시켜 추진한다면 결코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水利事業 中小 河川流域開發 및 耕地整理등 農業社會間接資本의 充도 새로운 次元으로 접어들 必要가 있다. 첫째로 水利事業은 四大江流域開發로 먼저 水資源의 確保가 계속 필요한 동시에 水利를 田地와 低山地까지 끌어올리는 第二段階 水利事業이 강력하게 추진될 必要가 있다. 둘째로 中小河川流域開發로 河川改修와 河川遊休地의 耕地化가 本格的으로 추진될 必要가 있다. 耕地가 不足한 往年の 伊太利에서 크게 成果를 본 事業이기도 하며, 耕地化된 遊休地를 扠下한다면 採算이 맞는 特別會計로 이 事業은 推進될 수 있다. 中小河川뿐 아니라 貯水地의 整理에 의해서도 많은 耕地를 얻을 수 있다.

南北經濟交流에 對備한 国力總和體制는 이처럼 農漁村經濟의 開發이 重工業의 專門化 系列化에 의한 勞動集約型化에 못지 않게 重要한 課題인 것이다.

6 . 結 語

南北對話 내지 經濟交流는 对内 与件의 成熟에서 우리났다고 보기 보다는 東西解氷의 國際情勢로 말미암아 外的으로 強要된 對話는 南北交流이다. 따라서 南北의 經濟交流는 國際情勢의 压力과 南北 双方의 敵對陣營에 대한 門戶開放政策上 不得已하지만 其実 冷戰을 南北經濟交流란 場面으로 옮겨 놓았다고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만일 그것이 實現되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해도 經濟交流에 의한 그 자체의 利得보다는 政治的 目的에 左右될 公算이 적어도 初期段階에서는 크다.

그러므로 南北간의 經濟交流에 필요한 国力의 總和体制가 必要하다. 왜냐하면 豫想할 수 있는 南北經濟交流는 첫째 經濟力 對比로서의 經濟交流가 될 것이고, 둘째 1人体制 對 萬人体制의 競爭일 것이며, 세째 農漁村經濟의 開發이 촉진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經濟力比較로서의 南北交流는 곧 重化学工業化, 그중에서도 우리가 相對的으로 뒤지고 있는 重工業의 專門化와 系列化 그리고 그것을 可能케 하는 株式의 公開로 民間資本이 최대한 動員될 수 있는 總力体制의 확립이 필요하다. 1人体制 對 萬人体制간의 競爭이 바로 南北經濟交流에서도 나타날 것이므로 政治面에 있어서의 維新憲法처럼 經濟体制 面에서도 1人体制와 團體交渉하고 우리의 商品이 우리의 政策目的대로 侵透될 수 있는 体制의 整備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에게 參考가 되는 것은 往年의 國家資

本主義体制의 일부 制度이다.

重化学工業의 開發로 우리의 競爭力을 提高하고 經濟構造의 高度化를 피하는 것 이상으로 農漁村經濟의 開發이 南北간의 經濟交流의 戰略上 必要不可欠하다.

共產体制와 對決하기 위해서는 國民階層간의 利害對立을 緩和하여 總和体制을 確立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진국이나 中進국에서는 先進國과 달라 企業家 對 勤勞者의 對立이 아니라, 都市와 農漁村의 格差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農漁村 生活環境改善 政策으로서의 새마을運動은 보다 높은 次元으로 昇華되어 住宅構造 및 村落構造의 改善政策으로 轉換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農業社會 間接資本의 擴充政策도 새로운 次元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